

포천신도시 추진일정 지연될 듯

이중효 시의원 질문에 박윤국 시장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용역기간 연장

포천신도시 건설에 따른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제37회 임시회에서 이중효 시의원은 시장질문을 통해 "포천신도시 건설에 따라 2007년1월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 738만평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효 의원은 택지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신북면과 가산면, 군내면 일원에 대한 행위제한구역 해제 예정시기와 2단계 및 3단계 지구지정, 신도시 2단계와 3단계 사업실현 가능성을 질문했다.

박윤국 시장은 이중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초 포천시가 계획했던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일정은 2008년5월까지 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받고 2009년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당초 계획했던 2008년5월까지 건설교통부 지구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7월 이후에 1단계 사업 4.96km(150만평)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2010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2011년 착공,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인 지원도시사업 6.61km(200만평)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현재 용역중인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서는 1단계 4.96km(150만평)과 2단계 사업인 지원도시 건설 6.61km(2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중으로 2008년 7월이면 11.57km(35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안)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08년 8월경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후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지구지정의 유효성을 감안해 지구지정(안)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일정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고 개발이 비현실적인 지역은 해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도시 확대개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해 박 시장은 "포천신도시 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신도시 개발전략



포천시의회 제3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중효 시의원은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시기를 밝히라는 질문에 박윤국 시장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150만평을 추진하면서 2단계로 200만평을 추진해 군공공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발법의 규정에 3.30km(100만평) 이상의 지원도시 사업으로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1.57km(350만평)의 신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중효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토

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택지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기간 연장에 대해 1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단계적으

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08년 8월경 건설교통부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서와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1단계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및 2단계 지원도시 사업지구와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비현실적인 지역을 판단해 해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

겠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12월11일 시작

예비후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

박윤국 출마 전제 10여명 보궐선거 물밑작업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박윤국 포천시장의 출마여부가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한달여 남았다.

또 박윤국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타진하는 인사들이 물밑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지역정가는 선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출마여부에 대해 이달 중에 확실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출마여부는 자기판단과 주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징후만 보고도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출마의 뜻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현 나라 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적을 옮겨가면서 공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12월11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 사업지구와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비현실적인 지역을 판단해 해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

겠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미친다고 판단하고 집권당의 공천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특히 거명되고 있는 인사 가운데는 대통령 후보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포천시민들의 관심은 박윤국 포천시장의 출마할 것이냐 여부다. 또 현재 박 시장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고조흥 국회의원과의 경쟁에서 과연 한나라당 공천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에 관한 사항이다.

▶보궐선거 예비후보군

박윤국 시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포천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4일에 실시된다. 그래서 보궐선거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포천시장 예비후보군이다.

자천타천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우형 도의원 과 이주석 도의원, 이중효 시의원,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 이상만 국회의원 보좌관, 안재용 경기도 한나라당 선대위 총괄간사, 서장원 대한합신당 등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를 전제해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보궐선거에 대비해 각 지역 행사장은 물론 여론형성장과 접촉을 넓혀가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보궐선거가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박윤국 포천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여부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윤국 시장이 출마할 경우 현 고조흥 국회의원과 어떤 쪽을 선택할지도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하루전인 12월10일이 되면 박윤국 시장의 국회의원 후보출마 여부와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확실해진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국회의원 예비후보군

내년 4월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천지역에서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현 고조흥 국회의원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구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차상구 한나라당 한민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장명재 대한합신당 포천연합 당협위원장 등 5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일단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전철 7호선 포천연장 승인하라”

포천시 전철유치위원회,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시대 안보논리에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역 차별로 인해 저발전을 감내해 온 경기도 포천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전철유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포천시민들은 “전철유치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관련법, 상수원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대한 정서적, 실제적 보상이어야 한

다”며 조속한 사업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포천시 전철유치위원회(상임대표 이천수 대진대 총장)는 이 같은 포천시민들의 전철유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관내 모든 기관, 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미 1만 명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은 상태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범시민 서명의 날 행사를 갖고 10만명 서명운동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도권 북동부 광역교통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포천 광역철도를 오는 2010년 이전에 조속히 착공해야만 포천시가 저발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재용(45) 운영위원장은 “포



포천시 전철유치위원회는 지난 1일 반월아트홀에서 범시민 서명의 날 행사를 갖고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천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망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극심한 교통난 속에 저발전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큰 곳”이라며 “사업비 대부분은 신도시 개

발과 전철 7호선 장암기지장이전을 통해 자체 조달할 계획이므로 중앙정부는 신속히 사업승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시에는

(주)꽃샘종합식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65년 7월 전업양봉 개시
- 1987년 3월 현재 1공장 신축 준공
- 1992년 7월 (주)꽃샘종합식품 법인 설립
- 1997년 9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중부 영업소 개소
- 2004년 10월 ISO. 9001-14001 인증획득
- 2005년 7월 농촌사랑 1社1村운동 자매결연 전북 임실 두월마을
- 10월 국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 2006년 9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12월 우크라이나 빅토르안드리오비치우센코 대통령 방문
- 2007년 5월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제 2공장 준공
- 6월 대통령초청, 우크라이나 방문 우호협력 조인식 체결

수훈·수상

- 1996년 10월 베트남 아시아 양봉학술대회전시 최우수상 수상
- 12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2000년 2월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수상
- 2001년 11월 대한민국석탑산업훈장 수훈
- 1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 수상
- 2003년 6월 LG 유통으로부터 최우수업체 금상 수상
- 2004년 3월 국제청장 표창수상
- 2006년 2월 롯데마트로부터 감사패 수상
- 2007년 5월 상공회의소 주관 직장인체육대회 3년 연속우승
- 5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6월 인재정책회 장학금기증 포천시장 감사패 수상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주)꽃샘종합식품
 KKOH SHAEM GENERAL FOOD CO., LTD.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 代 031)541-9921 FAX: 031)541-9933
 http://www.ksfs.co.kr